

이런 말을 들으며 그는 어두운 안개가 살금 살금 다가오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일론 뒤를 돌아봤다. 티브이에서 질병본부장이 높은 단계의 거리두기를 계속 유지한다고 말했다. 질병본부장의 가르마엔 흰머리가 작년보다 부쩍 늘었다. 고모 얼굴만큼 친숙한 그녀를 이제는 그만 본다면 좋겠다.

V는 주무기가 아닌, 자신의 그림자 같은 2차 병기로 부팀장을 쓰러뜨렸다. 남은 팀원도 언제까지 버텨낼지 모르겠다. 놈들의 2차 병기는 주무기보다 더 지랄 같아서 마치 고무줄을 잡아당기듯, 사람들을 점점 팽팽한 상태로 끌고 갈 터이다. 마침내 고무줄을 더 이상 잡아당길 수도 없고 그대로 놔둘 수도 없는 지경에 이르러 V는 거기서 오래 동안 괴롭힐 것이다. 다음에는 누가 당할까?

V는 과연 사라질까? 인류와 V의 전쟁. 우리는 이겨낼 수 있을까?

앞으로 수 년 동안 아니 죽을 때까지

마스크를 벗지 못할 거라는 예감이 들었다

신 경사의 원형탈모는 더 넓어졌고 채 경장의 맥박은 가끔 이유 없이 빨라졌다. 그의 이명도 V 이후에 더욱 커졌다. 깊은 우물에 빠진 사람이 구조해 달라고 외치는데 애매하게 부르고 있었다. 한 걸러본 사람은 이 괴로움을 모른다. 아버지의 환청은 이보다 훨씬 더했으리라. 나는 공산주의자이고 김대중에게 자금을 받았다. 불러주는 대로 받아쓰라며 놈들은 잠복한 구타와 고문을 저질렀다. 삼사 일간의 행적을 다시 읽어봤다. 문장이 너무 건조하고 초등학생 일기 같아서 마음에 들지 않았다. 특히 괄호 안의 내용이 쓸데없게 느껴져서 그 부분을 모두 지웠다. 나머지를 역학조사팀에 이메일로 보냈다.

학진자의 브이로그에 들어가 생활치료센터에서의 경험담을 시정했다. 준비물인 속옷 및 벌과 세면도구, 수건 세 장과 슬리퍼를 챙겼다.

침대에 누웠으나 잠은 오지 않고 이런저런 생각만 들었다. V는 필시 여러 차례 그에게 왔을 것이다. 마스크에 막혔는지 아니면 허파에 들어앉았을 터. 놈들이 이미 들어왔다면 그를 죽이거나 혹은 미각과 후각을 망가뜨릴 수 있다.

부팀장은 언제 돌아올까? 빼앗긴 시간이 끝나야 가능한 것이다. 스무 명 이상이 회식하다가 일부는 먼저 가고 남은 사람이 밤 아홉 시 이후에도 노래방에 몰려가는 그런 때가 다시 오면 부팀장은 돌아오리라. 멘토가 떠났으니 그는 혼자 일하는 데 더 익숙해져야 한다.

V는 과연 사라질까? 백색에 밀리고 있는 놈들은 어수룩한 지역에 들어가 변이를 꾀한 뒤 다시 날뛴다. 인류와 V의 전쟁. 우리는 이겨낼 수 있을까? 앞으로 수 년 동안 아니 죽을 때까지 마스크를 벗지 못할 거라는 예감이 들었다.

아버지의 환청도 죽을 때까지 끝나지 않았다. 아버지는 정신과에서 주는 약만으로는 직장 생활을 버티지 못했다. 자다가 비명을 지르며 깨어나곤 했다. 바닷가에 나가 몇 시간이나 망연히 앉아 있던 아버지를 어린 그가 모시고 집으로 돌아온 적이 여러 번이었다.

놈들은 아침이면 말쑥한 양복차림으로 지하실에 나타났다. 아버지에게 먹을 것을 주면서 밤새 잘 잤냐고 물었다. 그리고는 친절한 말투로, 밖에는 날씨가 화창하다고 알려줬다.

V는 아침마다 안전 안내 문자로 찾아온다. 어디를 방문하신 분은 검사 받으시라고 점잖고 걱정스럽게 읽어 준다. 밖에는 신규 확진자가 몇 명이라고 곱살맞게 알려준다. 그는 내일을 위해 잠을 자고 싶어 멜라토닌 두 알을 삼켰다.

새벽 잠결에 쿵하는 천둥소리를 들음과 동시에 몸이 들썩었다. 휴대폰을 보니 다섯 시 몇 분 전. 왼쪽 귀에서 썩썩 소리가 크게 들려왔다. 소리는 오른쪽 귀로 옮겨가더니 없어졌다. 몸을 일으켜 침대에 앉으려는데 어질어질하고 속이 울렁거렸다. 동시에 아랫배가 불편해지면 서 설사가 나오려고 했다.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서는데 육하고 무엇이 올라오는가 싶더니 그대로 고

꾸라지면서 바다에 토했다. 눈앞이 어른거리면서 머리가 한쪽으로 자꾸 구부러져서 받을 땀 수도 없었다. 화장실까지 간신히 기어가서 변기에 앉았다니 설사가 줄줄 나왔다.

기침이나 고열이 없으니 V 증상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럼 무엇일까?

오른쪽 귀가 먹먹했다. 갑자기 한기가 들면서 몸이 덜덜 떨렸다. 화장실을 나와 방바닥에 드러누웠다. 천장이 왼쪽으로 기울었다가 다시 오른쪽으로 기울어졌다. 손발이 떨리는데도 온몸에 힘이 다 빠져 지면서 바닥으로 가라앉는 듯한 환각이 들었다. 이대로 잠이 들면 영영 못 깨어날 것이다. 신음을 내지르며 몸을 뒤집었다. 침대까지 느끼게 기어가서 핸드폰을 잡고 119를 눌렀다.

방역 장비로 온몸을 덮은 대원 두 명이 그가 알려준 도어락 번호를 누르고 들어왔다. KF94와 고글을 그에게 씌웠다. 방안 구석구석과 화장실에 살균제를 뿌리고 그의 몸에도 분사했다. 클로로포름에 여름 땀이 섞인 것 같은 냄새가 났다. 대원이 그를 휠체어에 앉히고 담요를 덮어줬다. 밖으로 나가자 옆방 사람들이 무슨 일인가 확인하러 나와 있었다. 그를 보더니 혹시나 전염될까봐 황급히 문을 닫고 들어갔다.

종합병원에 도착했을 때 응급실에 곧바로 들어가 지 못 했다. 검사 결과를 모르는 밀접접촉자이므로 주차장 한 쪽에 놓인 컨테이너로 가라는 거였다. 흑갈색 컨테이너 두 개를 맞대어 만든 간이 진료소. 119 대원이 밀어주는 휠체어를 타고 그가 안에 들어가니 컨테이너를 연결하는 사잇벽에 유리창이 나 있었다. 유리창 너머로 저쪽 내부가 보였다.

한참 뒤, 저쪽 컨테이너에서 하얀 방호복을 입은 의사와 간호사가 들어섰다. 의사가 마이크로 말하자 이쪽에서 앰프가 울렸다. 그의 힘없는 목소리도 저쪽에서 증폭되었다. 증상을 다 들은 의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뇌 MRI를 찍어봐야 확실하지만 지금 바서는 오른쪽 귀에 돌발성 난청이 왔어요.”
“돌발 뭐라고요?”
확실히 못 들어서 그가 되물었다. 상대의 입술 모양을 본다면 더 나은 텐데 마스크로 가려져서 그러지 못했다. 의사가 소리를 키워 또박또박 발음했다.

“돌발 성 난 청 이라고 요!”
그는 난청이라는 단어를 못 들은 난청자가 되었다. 아버지에겐 듣고 싶은 고동기 자꾸 들렸고 그에겐 들어야 할 정보가 안 들렸다.
“돌발성 난청이란 게 뭐예요?”
“갑자기 어지럽고 한 쪽 귀가 안 들리는 증상이에요.”
그는 오른쪽 귀가 안 들리는지를 시험하기 위해 왼쪽 귀를 막고 소리 내었다.
“아, 아, 아.”
멀리서 아스라이 들려왔다.
“거의 안 들리네요.”
그가 고개를 흔들며 중얼거렸다. 그리고 물었다.
“귀에 바이러스가 들어갔나요?”
“그건 아니에요.”
“예전부터 이명이 심했는데 그것 때문인가요?”
“아닙니다.”
이명은 울해 들어 더욱 커졌다. 지하실에서 고문 당하는 청년이 내지르는 긴 비명이 들리고 있었다.
“날마다 먹던 기념신을 요즘 들어 띄엄띄엄 먹었는데 그게 원인인가요?”
“아니에요.”
은행나무 잎으로 만든 기념신이 귀에 좋다고 하여 지난 일 년간 날마다 복용했으나 효과가 없었다. 실망한 그는 요사이 이따금 먹었다.
“그럼 왜 이래요?”
“스트레스가 주원인이예요.”
“뭐라고요? 잘 안 들려요.”
의사가 눈살을 찌푸렸다.
“다시 한 번 말해주세요.”
상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마스크 속에서 단어를 끊어가며 말했다.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왼쪽 귀의, 기능, 멈춰 버렸다고요!”
의사는 말하는 도중 손을 귀에 가져갔다.
“아,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생긴 난청이군요.”
그는 혹시 V가 찾아왔냐고 물었다. 의사는 그건 아니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무증상도 많으니 PCR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여기서 기다리라고, 그 후에 다른 검진을 해보자고 덧붙였다. 일어서서 나가는 의사에게 간호사가 말했다.
“요사이 낫병 환자가 부쩍 늘었어요. 입과 코를 막으니 귀가 고장 나는가 봐요.”
의사가 대꾸했다.
“그러게요. 요즘 사람들 스트레스와 우울증이 엄청 심해지는 것 같아요. 젊은 사람은 원래 이 병에 잘 안 걸렸는데 최근에 와서 많아지고 있네요.”
그의 귀로 제대로 들었는지 확인할 수 없다. 두 사람이 저쪽 문을 열고 나가자 문 사이로 오토바이 폭음이 쳐들어왔다. 저만 살겠다고 짚어대는 저놈의 총소리를 이제 그만 듣고 싶다.
휠체어가 담겼다. 그는 이쪽 컨테이너에 혼자 남겨졌다. 고개를 가누기도 힘들어서 드러눕고 싶지만 그러면 토할 것 같다.
놈들은 아버지를 알몸으로 벗겨서 감감한 지하실 가운데에 매달았다. 오직 아버지에게만 비치는 백열등 아래에서 몽둥이를 휘둘렀다. 청년은 여러 차례 정신을 잃었다. 그러면 놈들은 축 늘어진 몸을 찬물을 끼얹고 군화발로 찼다.

그는 지금 기다리고 있다. 체계를 재취한 후 여섯 시간이 지나면 알 수 있다고 하니 검사 결과는 이미 나와 있을 터. 당사자인 V는 알고 있으나 그는 모른다. 보건소의 책임 있는 담당자가 출근하려면 더 기다려야 한다. 지난날을 들여다보면 V는 항상 겁이있고 보건소는 을, 그는

병이었다. jeans 이럴 때는 보건소 직원이라도 좀 빨리 움직이면 오죽 좋으련만.
저쪽 컨테이너 문이 열리고 간호사가 들어선다. 사잇벽의 유리창을 옆으로 밀어내니 통과 공간이 생긴다. 그가 왼팔을 집어넣자 간호사가 손등에서 혈관을 찾는다. 그녀의 투명한 라텍스 장갑이 선명하다. 간호사가 말한다.
“어지럽증과 구토를 줄여주는 주사입니다. 좀 줄릴 거예요.”
“양성으로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양성이면 음압 병실에 입원하고 음성이면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아요.”
간호사는 혼자 기다리는 동안에도 마스크를 벗으면 안 된다고 말한다.
“가슴이 너무 답답하네요. 답답증을 풀어주는 주사도 놔주세요.”
“그런 주사는 없는데요.”
놈들은 목욕 수건을 아버지 얼굴에 여러 겹으로 감았다. 그리고는 입과 코 부위를 놈들의 손으로 눌렀다. 양팔이 묶인 아버지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누르기는 계속되었다. 비명을 질러도 소리는 나지 않고 숨만 더 막혔다. 놈들은 시간을 재다가 질식사 직전에 수건을 풀었다.
간호사가 통과 공간 너머로 팔을 뻗어 그의 휠체어 지지대 꼭대기에 링거 튜브를 건다. 열린 유리창을 잡아당기자 컨테이너 사이가 닫힌다. 밖으로 나가려던 간호사가 묻는다.
“보초자는 언제 오나요?”
“여차 천구가 여기에 들렀다가 제 시간에 출근하는 가볼 것이다. 그녀는 얼마 전부터 은행 콜센터에 나갔다. 무더기로 확진된 직원들의 자리를 메꾸는 일손이기 때문에 출근 시간을 늦출 수 있는 처지가 아니다. 누나와 매형은 전주에서 하던 식당을 접고 세종시로 옮겨 새로 열었다. 식당은 거리두기 탓에 파리 날리고 있지만 두 사람은 그래도 부업거리가 있어서 하루 중일 일하는 모양. 그런 누나에게 차마 전화하지 못 하겠다.

그렇게 시작된 이명은 군대에서 사격 훈련을 받을 때 귀 옆에서 계속 터진 총소리 때문에 더 커졌다. V가 돌아다니는 후로 오토바이 폭음과 줌의 기계음을 들으며 점점 높아지더니 마침내 V 난청에 걸리면서 최대로 아우성치고 있다.
아버지는 고문 후유증과 병마에 시달리다 오십을 넘기지 못했다. 마을 앞 바닷가에 앉은 채로, 빼앗긴 인생을 거두었다.

그는 대기 중이다. 컨테이너 안에 덩그러니 남겨져서, 무슨 뜻인지도 잘 모르겠는 비인두도말 PCR 검사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머리가 먹먹해지면서 양팔의 힘이 나른하게 풀린다. 주사약의 효과이리라. 몸이 점점 아래로 가라앉는다. 눈이 감기고 정신이 흐려지더니, 감정 나비한 머리가 언뜻거리며 날아오른다. 세 마리, 네 마

리가 모여들고 어디선가 V의 음성이 들려온다. 고음이 잘린 채 웅웅거리며. 누군가 몽둥이로 컨테이너 벽을 긁어댈 때 나는 소리처럼 들려온다.
“너를 단번에 죽이지 않아. 한 군데씩 부러뜨려서 야금야금 잡아먹을 테야.”
흠칫 놀라 눈을 뜨니, 나비는 사라지고 어깨 위에 서 링거액이 떨어지고 있다. 뒷배가 매스꺼리고 입 안에 신물이 고인다. 천장이 기울어지면서 다시 눈이 감기더니, 놈들의 음성이 되살아난다. 아침 날씨를 알려주는 친절할 말투로.
“단숨에 거두지 않아. 야금야금 짓뭉개서 오래오래 유폐부짚게 해 줄 게.”
소리는 어느새 귀울음과 뒤엉켜 환청으로 들려온다.
그는 오전 아홉 시를 견디고 있다. V가 곧 나타날리라. 놈들은 말쑥한 양복차림으로 들어와 밤새 잘 잤냐고 물을 것이다. 그리고는 바깥 날씨나 말하고 들어가든지 아니면 음압 병실로 그를 끌고 가든지. 그에게는 선택권이 없다. 숨거나 도망가지도 못한다. 천장이 돌아가는 어지럽증과 바닥이 올라오는 메스꺼움과 이명에 엉겨 붙는 환청에 시달리며 축 늘어진 채 버티고 있을 뿐.

그는 지금 기다리고 있다. 체계를 재취한 후 여섯 시간이 지나면 알 수 있다고 하니 검사 결과는 이미 나와 있을 터. 당사자인 V는 알고 있으나 그는 모른다. 보건소의 책임 있는 담당자가 출근하려면 더 기다려야 한다. 지난날을 들여다보면 V는 항상 겁이있고 보건소는 을, 그는

병이었다. jeans 이럴 때는 보건소 직원이라도 좀 빨리 움직이면 오죽 좋으련만.
저쪽 컨테이너 문이 열리고 간호사가 들어선다. 사잇벽의 유리창을 옆으로 밀어내니 통과 공간이 생긴다. 그가 왼팔을 집어넣자 간호사가 손등에서 혈관을 찾는다. 그녀의 투명한 라텍스 장갑이 선명하다. 간호사가 말한다.
“어지럽증과 구토를 줄여주는 주사입니다. 좀 줄릴 거예요.”
“양성으로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양성이면 음압 병실에 입원하고 음성이면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아요.”
간호사는 혼자 기다리는 동안에도 마스크를 벗으면 안 된다고 말한다.
“가슴이 너무 답답하네요. 답답증을 풀어주는 주사도 놔주세요.”
“그런 주사는 없는데요.”
놈들은 목욕 수건을 아버지 얼굴에 여러 겹으로 감았다. 그리고는 입과 코 부위를 놈들의 손으로 눌렀다. 양팔이 묶인 아버지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누르기는 계속되었다. 비명을 질러도 소리는 나지 않고 숨만 더 막혔다. 놈들은 시간을 재다가 질식사 직전에 수건을 풀었다.
간호사가 통과 공간 너머로 팔을 뻗어 그의 휠체어 지지대 꼭대기에 링거 튜브를 건다. 열린 유리창을 잡아당기자 컨테이너 사이가 닫힌다. 밖으로 나가려던 간호사가 묻는다.
“보초자는 언제 오나요?”
“여차 천구가 여기에 들렀다가 제 시간에 출근하는 가볼 것이다. 그녀는 얼마 전부터 은행 콜센터에 나갔다. 무더기로 확진된 직원들의 자리를 메꾸는 일손이기 때문에 출근 시간을 늦출 수 있는 처지가 아니다. 누나와 매형은 전주에서 하던 식당을 접고 세종시로 옮겨 새로 열었다. 식당은 거리두기 탓에 파리 날리고 있지만 두 사람은 그래도 부업거리가 있어서 하루 중일 일하는 모양. 그런 누나에게 차마 전화하지 못 하겠다.

그는 대기 중이다. 컨테이너 안에 덩그러니 남겨져서, 무슨 뜻인지도 잘 모르겠는 비인두도말 PCR 검사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머리가 먹먹해지면서 양팔의 힘이 나른하게 풀린다. 주사약의 효과이리라. 몸이 점점 아래로 가라앉는다. 눈이 감기고 정신이 흐려지더니, 감정 나비한 머리가 언뜻거리며 날아오른다. 세 마리, 네 마

리가 모여들고 어디선가 V의 음성이 들려온다. 고음이 잘린 채 웅웅거리며. 누군가 몽둥이로 컨테이너 벽을 긁어댈 때 나는 소리처럼 들려온다.
“너를 단번에 죽이지 않아. 한 군데씩 부러뜨려서 야금야금 잡아먹을 테야.”
흠칫 놀라 눈을 뜨니, 나비는 사라지고 어깨 위에 서 링거액이 떨어지고 있다. 뒷배가 매스꺼리고 입 안에 신물이 고인다. 천장이 기울어지면서 다시 눈이 감기더니, 놈들의 음성이 되살아난다. 아침 날씨를 알려주는 친절할 말투로.
“단숨에 거두지 않아. 야금야금 짓뭉개서 오래오래 유폐부짚게 해 줄 게.”
소리는 어느새 귀울음과 뒤엉켜 환청으로 들려온다.
그는 오전 아홉 시를 견디고 있다. V가 곧 나타날리라. 놈들은 말쑥한 양복차림으로 들어와 밤새 잘 잤냐고 물을 것이다. 그리고는 바깥 날씨나 말하고 들어가든지 아니면 음압 병실로 그를 끌고 가든지. 그에게는 선택권이 없다. 숨거나 도망가지도 못한다. 천장이 돌아가는 어지럽증과 바닥이 올라오는 메스꺼움과 이명에 엉겨 붙는 환청에 시달리며 축 늘어진 채 버티고 있을 뿐.

그는 지금 기다리고 있다. 체계를 재취한 후 여섯 시간이 지나면 알 수 있다고 하니 검사 결과는 이미 나와 있을 터. 당사자인 V는 알고 있으나 그는 모른다. 보건소의 책임 있는 담당자가 출근하려면 더 기다려야 한다. 지난날을 들여다보면 V는 항상 겁이있고 보건소는 을, 그는

병이었다. jeans 이럴 때는 보건소 직원이라도 좀 빨리 움직이면 오죽 좋으련만.
저쪽 컨테이너 문이 열리고 간호사가 들어선다. 사잇벽의 유리창을 옆으로 밀어내니 통과 공간이 생긴다. 그가 왼팔을 집어넣자 간호사가 손등에서 혈관을 찾는다. 그녀의 투명한 라텍스 장갑이 선명하다. 간호사가 말한다.
“어지럽증과 구토를 줄여주는 주사입니다. 좀 줄릴 거예요.”
“양성으로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양성이면 음압 병실에 입원하고 음성이면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아요.”
간호사는 혼자 기다리는 동안에도 마스크를 벗으면 안 된다고 말한다.
“가슴이 너무 답답하네요. 답답증을 풀어주는 주사도 놔주세요.”
“그런 주사는 없는데요.”
놈들은 목욕 수건을 아버지 얼굴에 여러 겹으로 감았다. 그리고는 입과 코 부위를 놈들의 손으로 눌렀다. 양팔이 묶인 아버지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누르기는 계속되었다. 비명을 질러도 소리는 나지 않고 숨만 더 막혔다. 놈들은 시간을 재다가 질식사 직전에 수건을 풀었다.
간호사가 통과 공간 너머로 팔을 뻗어 그의 휠체어 지지대 꼭대기에 링거 튜브를 건다. 열린 유리창을 잡아당기자 컨테이너 사이가 닫힌다. 밖으로 나가려던 간호사가 묻는다.
“보초자는 언제 오나요?”
“여차 천구가 여기에 들렀다가 제 시간에 출근하는 가볼 것이다. 그녀는 얼마 전부터 은행 콜센터에 나갔다. 무더기로 확진된 직원들의 자리를 메꾸는 일손이기 때문에 출근 시간을 늦출 수 있는 처지가 아니다. 누나와 매형은 전주에서 하던 식당을 접고 세종시로 옮겨 새로 열었다. 식당은 거리두기 탓에 파리 날리고 있지만 두 사람은 그래도 부업거리가 있어서 하루 중일 일하는 모양. 그런 누나에게 차마 전화하지 못 하겠다.

그는 대기 중이다. 컨테이너 안에 덩그러니 남겨져서, 무슨 뜻인지도 잘 모르겠는 비인두도말 PCR 검사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머리가 먹먹해지면서 양팔의 힘이 나른하게 풀린다. 주사약의 효과이리라. 몸이 점점 아래로 가라앉는다. 눈이 감기고 정신이 흐려지더니, 감정 나비한 머리가 언뜻거리며 날아오른다. 세 마리, 네 마

리가 모여들고 어디선가 V의 음성이 들려온다. 고음이 잘린 채 웅웅거리며. 누군가 몽둥이로 컨테이너 벽을 긁어댈 때 나는 소리처럼 들려온다.
“너를 단번에 죽이지 않아. 한 군데씩 부러뜨려서 야금야금 잡아먹을 테야.”
흠칫 놀라 눈을 뜨니, 나비는 사라지고 어깨 위에 서 링거액이 떨어지고 있다. 뒷배가 매스꺼리고 입 안에 신물이 고인다. 천장이 기울어지면서 다시 눈이 감기더니, 놈들의 음성이 되살아난다. 아침 날씨를 알려주는 친절할 말투로.
“단숨에 거두지 않아. 야금야금 짓뭉개서 오래오래 유폐부짚게 해 줄 게.”
소리는 어느새 귀울음과 뒤엉켜 환청으로 들려온다.
그는 오전 아홉 시를 견디고 있다. V가 곧 나타날리라. 놈들은 말쑥한 양복차림으로 들어와 밤새 잘 잤냐고 물을 것이다. 그리고는 바깥 날씨나 말하고 들어가든지 아니면 음압 병실로 그를 끌고 가든지. 그에게는 선택권이 없다. 숨거나 도망가지도 못한다. 천장이 돌아가는 어지럽증과 바닥이 올라오는 메스꺼움과 이명에 엉겨 붙는 환청에 시달리며 축 늘어진 채 버티고 있을 뿐.

그는 지금 기다리고 있다. 체계를 재취한 후 여섯 시간이 지나면 알 수 있다고 하니 검사 결과는 이미 나와 있을 터. 당사자인 V는 알고 있으나 그는 모른다. 보건소의 책임 있는 담당자가 출근하려면 더 기다려야 한다. 지난날을 들여다보면 V는 항상 겁이있고 보건소는 을, 그는

병이었다. jeans 이럴 때는 보건소 직원이라도 좀 빨리 움직이면 오죽 좋으련만.
저쪽 컨테이너 문이 열리고 간호사가 들어선다. 사잇벽의 유리창을 옆으로 밀어내니 통과 공간이 생긴다. 그가 왼팔을 집어넣자 간호사가 손등에서 혈관을 찾는다. 그녀의 투명한 라텍스 장갑이 선명하다. 간호사가 말한다.
“어지럽증과 구토를 줄여주는 주사입니다. 좀 줄릴 거예요.”
“양성으로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양성이면 음압 병실에 입원하고 음성이면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아요.”
간호사는 혼자 기다리는 동안에도 마스크를 벗으면 안 된다고 말한다.
“가슴이 너무 답답하네요. 답답증을 풀어주는 주사도 놔주세요.”
“그런 주사는 없는데요.”
놈들은 목욕 수건을 아버지 얼굴에 여러 겹으로 감았다. 그리고는 입과 코 부위를 놈들의 손으로 눌렀다. 양팔이 묶인 아버지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누르기는 계속되었다. 비명을 질러도 소리는 나지 않고 숨만 더 막혔다. 놈들은 시간을 재다가 질식사 직전에 수건을 풀었다.
간호사가 통과 공간 너머로 팔을 뻗어 그의 휠체어 지지대 꼭대기에 링거 튜브를 건다. 열린 유리창을 잡아당기자 컨테이너 사이가 닫힌다. 밖으로 나가려던 간호사가 묻는다.
“보초자는 언제 오나요?”
“여차 천구가 여기에 들렀다가 제 시간에 출근하는 가볼 것이다. 그녀는 얼마 전부터 은행 콜센터에 나갔다. 무더기로 확진된 직원들의 자리를 메꾸는 일손이기 때문에 출근 시간을 늦출 수 있는 처지가 아니다. 누나와 매형은 전주에서 하던 식당을 접고 세종시로 옮겨 새로 열었다. 식당은 거리두기 탓에 파리 날리고 있지만 두 사람은 그래도 부업거리가 있어서 하루 중일 일하는 모양. 그런 누나에게 차마 전화하지 못 하겠다.

그는 대기 중이다. 컨테이너 안에 덩그러니 남겨져서, 무슨 뜻인지도 잘 모르겠는 비인두도말 PCR 검사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머리가 먹먹해지면서 양팔의 힘이 나른하게 풀린다. 주사약의 효과이리라. 몸이 점점 아래로 가라앉는다. 눈이 감기고 정신이 흐려지더니, 감정 나비한 머리가 언뜻거리며 날아오른다. 세 마리, 네 마

리가 모여들고 어디선가 V의 음성이 들려온다. 고음이 잘린 채 웅웅거리며. 누군가 몽둥이로 컨테이너 벽을 긁어댈 때 나는 소리처럼 들려온다.
“너를 단번에 죽이지 않아. 한 군데씩 부러뜨려서 야금야금 잡아먹을 테야.”
흠칫 놀라 눈을 뜨니, 나비는 사라지고 어깨 위에 서 링거액이 떨어지고 있다. 뒷배가 매스꺼리고 입 안에 신물이 고인다. 천장이 기울어지면서 다시 눈이 감기더니, 놈들의 음성이 되살아난다. 아침 날씨를 알려주는 친절할 말투로.
“단숨에 거두지 않아. 야금야금 짓뭉개서 오래오래 유폐부짚게 해 줄 게.”
소리는 어느새 귀울음과 뒤엉켜 환청으로 들려온다.
그는 오전 아홉 시를 견디고 있다. V가 곧 나타날리라. 놈들은 말쑥한 양복차림으로 들어와 밤새 잘 잤냐고 물을 것이다. 그리고는 바깥 날씨나 말하고 들어가든지 아니면 음압 병실로 그를 끌고 가든지. 그에게는 선택권이 없다. 숨거나 도망가지도 못한다. 천장이 돌아가는 어지럽증과 바닥이 올라오는 메스꺼움과 이명에 엉겨 붙는 환청에 시달리며 축 늘어진 채 버티고 있을 뿐.

그는 대기 중이다. 컨테이너 안에 덩그러니 남겨져서, 무슨 뜻인지도 잘 모르겠는 비인두도말 PCR 검사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머리가 먹먹해지면서 양팔의 힘이 나른하게 풀린다. 주사약의 효과이리라. 몸이 점점 아래로 가라앉는다. 눈이 감기고 정신이 흐려지더니, 감정 나비한 머리가 언뜻거리며 날아오른다. 세 마리, 네 마

리가 모여들고 어디선가 V의 음성이 들려온다. 고음이 잘린 채 웅웅거리며. 누군가 몽둥이로 컨테이너 벽을 긁어댈 때 나는 소리처럼 들려온다.
“너를 단번에 죽이지 않아. 한 군데씩 부러뜨려서 야금야금 잡아먹을 테야.”
흠칫 놀라 눈을 뜨니, 나비는 사라지고 어깨 위에 서 링거액이 떨어지고 있다. 뒷배가 매스꺼리고 입 안에 신물이 고인다. 천장이 기울어지면서 다시 눈이 감기더니, 놈들의 음성이 되살아난다. 아침 날씨를 알려주는 친절할 말투로.
“단숨에 거두지 않아. 야금야금 짓뭉개서 오래오래 유폐부짚게 해 줄 게.”
소리는 어느새 귀울음과 뒤엉켜 환청으로 들려온다.
그는 오전 아홉 시를 견디고 있다. V가 곧 나타날리라. 놈들은 말쑥한 양복차림으로 들어와 밤새 잘 잤냐고 물을 것이다. 그리고는 바깥 날씨나 말하고 들어가든지 아니면 음압 병실로 그를 끌고 가든지. 그에게는 선택권이 없다. 숨거나 도망가지도 못한다. 천장이 돌아가는 어지럽증과 바닥이 올라오는 메스꺼움과 이명에 엉겨 붙는 환청에 시달리며 축 늘어진 채 버티고 있을 뿐.

그는 대기 중이다. 컨테이너 안에 덩그러니 남겨져서, 무슨 뜻인지도 잘 모르겠는 비인두도말 PCR 검사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머리가 먹먹해지면서 양팔의 힘이 나른하게 풀린다. 주사약의 효과이리라. 몸이 점점 아래로 가라앉는다. 눈이 감기고 정신이 흐려지더니, 감정 나비한 머리가 언뜻거리며 날아오른다. 세 마리, 네 마

리가 모여들고 어디선가 V의 음성이 들려온다. 고음이 잘린 채 웅웅거리며. 누군가 몽둥이로 컨테이너 벽을 긁어댈 때 나는 소리처럼 들려온다.
“너를 단번에 죽이지 않아. 한 군데씩 부러뜨려서 야금야금 잡아먹을 테야.”
흠칫 놀라 눈을 뜨니, 나비는 사라지고 어깨 위에 서 링거액이 떨어지고 있다. 뒷배가 매스꺼리고 입 안에 신물이 고인다. 천장이 기울어지면서 다시 눈이 감기더니, 놈들의 음성이 되살아난다. 아침 날씨를 알려주는 친절할 말투로.
“단숨에 거두지 않아. 야금야금 짓뭉개서 오래오래 유폐부짚게 해 줄 게.”
소리는 어느새 귀울음과 뒤엉켜 환청으로 들려온다.
그는 오전 아홉 시를 견디고 있다. V가 곧 나타날리라. 놈들은 말쑥한 양복차림으로 들어와 밤새 잘 잤냐고 물을 것이다. 그리고는 바깥 날씨나 말하고 들어가든지 아니면 음압 병실로 그를 끌고 가든지. 그에게는 선택권이 없다. 숨거나 도망가지도 못한다. 천장이 돌아가는 어지럽증과 바닥이 올라오는 메스꺼움과 이명에 엉겨 붙는 환청에 시달리며 축 늘어진 채 버티고 있을 뿐.

그는 대기 중이다. 컨테이너 안에 덩그러니 남겨져서, 무슨 뜻인지도 잘 모르겠는 비인두도말 PCR 검사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머리가 먹먹해지면서 양팔의 힘이 나른하게 풀린다. 주사약의 효과이리라. 몸이 점점 아래로 가라앉는다. 눈이 감기고 정신이 흐려지더니, 감정 나비한 머리가 언뜻거리며 날아오른다. 세 마리, 네 마

리가 모여들고 어디선가 V의 음성이 들려온다. 고음이 잘린 채 웅웅거리며. 누군가 몽둥이로 컨테이너 벽을 긁어댈 때 나는 소리처럼 들려온다.
“너를 단번에 죽이지 않아. 한 군데씩 부러뜨려서 야금야금 잡아먹을 테야.”
흠칫 놀라 눈을 뜨니, 나비는 사라지고 어깨 위에 서 링거액이 떨어지고 있다. 뒷배가 매스꺼리고 입 안에 신물이 고인다. 천장이 기울어지면서 다시 눈이 감기더니, 놈들의 음성이 되살아난다. 아침 날씨를 알려주는 친절할 말투로.
“단숨에 거두지 않아. 야금야금 짓뭉개서 오래오래 유폐부짚게 해 줄 게.”
소리는 어느새 귀울음과 뒤엉켜 환청으로 들려온다.
그는 오전 아홉 시를 견디고 있다. V가 곧 나타날리라. 놈들은 말쑥한 양복차림으로 들어와 밤새 잘 잤냐고 물을 것이다. 그리고는 바깥 날씨나 말하고 들어가든지 아니면 음압 병실로 그를 끌고 가든지. 그에게는 선택권이 없다. 숨거나 도망가지도 못한다. 천장이 돌아가는 어지럽증과 바닥이 올라오는 메스꺼움과 이명에 엉겨 붙는 환청에 시달리며 축 늘어진 채 버티고 있을 뿐.

그는 대기 중이다. 컨테이너 안에 덩그러니 남겨져서, 무슨 뜻인지도 잘 모르겠는 비인두도말 PCR 검사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머리가 먹먹해지면서 양팔의 힘이 나른하게 풀린다. 주사약의 효과이리라. 몸이 점점 아래로 가라앉는다. 눈이 감기고 정신이 흐려지더니, 감정 나비한 머리가 언뜻거리며 날아오른다. 세 마리, 네 마

리가 모여들고 어디선가 V의 음성이 들려온다. 고음이 잘린 채 웅웅거리며. 누군가 몽둥이로 컨테이너 벽을 긁어댈 때 나는 소리처럼 들려온다.
“너를 단번에 죽이지 않아. 한 군데씩 부러뜨려서 야금야금 잡아먹을 테야.”
흠칫 놀라 눈을 뜨니, 나비는 사라지고 어깨 위에 서 링거액이 떨어지고 있다. 뒷배가 매스꺼리고 입 안에 신물이 고인다. 천장이 기울어지면서 다시 눈이 감기더니, 놈들의 음성이 되살아난다. 아침 날씨를 알려주는 친절할 말투로.
“단숨에 거두지 않아. 야금야금 짓뭉개서 오래오래 유폐부짚게 해 줄 게.”
소리는 어느새 귀울음과 뒤엉켜 환청으로 들려온다.
그는 오전 아홉 시를 견디고 있다. V가 곧 나타날리라. 놈들은 말쑥한 양복차림으로 들어와 밤새 잘 잤냐고 물을 것이다. 그리고는 바깥 날씨나 말하고 들어가든지 아니면 음압 병실로 그를 끌고 가든지. 그에게는 선택권이 없다. 숨거나 도망가지도 못한다. 천장이 돌아가는 어지럽증과 바닥이 올라오는 메스꺼움과 이명에 엉겨 붙는 환청에 시달리며 축 늘어진 채 버티고 있을 뿐.

단편소설 당선 소감

“팬데믹 2년, 희망 잃지 않고 긴 터널 이겨내길”



당선자 박정수

- ▲ 전남대 수학교육과 졸업
- ▲ 소설봉 동인
- ▲ 전남대 통계학과 교수

정소년 시절, 나는 어떤 소설을 읽고 크게 흔들렸다. '나도 누군가에게 이런 감동을 주는 글을 쓰고 싶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하고 싶은 것보다 해야 할 일을 먼저 해야 했기에 이과계열의 안정된 직장으로 향했다. 나이 사십이 넘어서야, 하고 싶은 것을 하려고 소설 창작에 들어섰다. 감동적인 글을 쓰기는 예상보다 어려웠다. 소설은 허구였고 현실은 냉엄했다. 하지만 어릴 적 생각은 놓이지 않았는지, 자꾸 나를 잡아당겼다. 픽션이 주는 위안 덕분에 계속 썼다. 삶에서 이루지 못한 회한을 이야기 속에서 이루만지고 추슬렀다.

‘V 난청’에서 나는 바이러스 탓에 고통 받는 우리의 딱한 모습을 그리려고 했다. 아울러 현재 팬데믹 상황이 과거 군사정권의 압제와 닮았다고 상상했다. 군부독재를 물리치고 민주를 얻었듯이,

바이러스를 이겨내면 더 나은 사회를 만들 수 있다. 그러나 희망을 잃지 말고 긴 터널을 견디내자고 말하고 싶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처럼 여러 선생님과 문우들이 나를 길렀다. 창작을 가르쳐준 문순태, 채희운, 이미란, 박상우, 최유안 소설가에게 감사드린다. 합평으로 나를 깨우친 생오지, 소설봉, 소설다방, 소행성, 말과활의 문청들과 이 기쁨을 나누고 싶다. 부족한 작품을 뽑아준 함정임 소설가에게도 감사드린다. 소재를 제공하고 초고를 혹평한 아들과 아내에게 애정을 듬뿍 보낸다.

작가라는 길에 들어서면 부담과 외로움이 습작기보다 더할 것이다. 누군가에게 감동이나 위로를 주는 글을 쓴다면 좋겠다. 불가해한 삶의 진실을 깨는 작품을 짓도록 노력하겠다.

단편소설 심사평

“허구같은 현실...삶과 진실과 인간의 존재 환기”



함정임 소설가

- ▲ 1990년 동아일보 신춘문예 등단
- ▲ 현 동아대 한국어문학부 교수
- ▲ 작품집 '저녁식사가 끝나 뒤' 등 다수

코로나 난국과 맞물려 가속화된 언택트, 가상현실(VR) 시대의 일상을 조명한 작품이 많았다. 소설의 본령인 재현과 환상이 2년째 거듭되는 돌발적인 현실 시스템 속에 어떻게 작동되고 있는가를 주목해 보았다.

최종심에 오른 작품은 ‘V 난청’ 외 3편이었다. 소재를 선택하는 감각과 선택된 소재를 하나의 이야기로 구축해 나가는 관찰력, 인간과 사회에 대한 시의적인 고민과 문제 제기, 그것을 다루는 작가의 안목과 기법을 평가의 중심에 두었다.

‘김노인의 바다’, ‘다인의 방’, ‘구찌 운동화를 신은 아이’는 VR 시대의 세부 사항들이 서사 중심에 배치되고, 사건이 작동되는 매개체로 개인 블로그와 인스타 V로그, 중고물품 앱 등이 활용되고 있다. 여기에서 관건은 매체의

속성과 인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욕망과 그것의 진위에 대한 작가적 통찰력이었다. 세 작품 모두 이러한 현실을 적시하는 소재 선택에 민첩한 반면, 문장과 주제 형성이 아쉬웠다.

‘V 난청’은 2년 동안 인간을 지배한 코로나 V가 어떻게 감각을 무력화시켜 의식을 파괴하고 삶을 해체하는가에 대한 소설적 보고서이다. 허구보다 더 허구 같은 현실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최소한의 허구만으로 압도적인 허구를 창출해냄으로써, 삶의 진실과 인간의 존재 의미를 시의적절하게 환기하고 있다. 다류 서사적인 구체성에 속도감이 있는 전개와 전환, 흐름을 꿰뚫어 이끌어가는 작가의 필력이 확인되어 당선작으로 결정했다.

당선자와 응모자 모두에게 응원과 함께 지속적인 정진을 바란다.